

## E-E1-23

### 인삼 품종 천풍, 연풍의 ginsenoside 조성

김금숙, 이성우, 이민정, 현동윤, 김영창, 손영득, 이승은, 김영옥, 안영섭,  
이광원, 남기열, 박호기  
농진청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천풍, 연풍은 인삼의 대표 품종으로서 천풍은 체형이 비교적 우수한 품종이고 연풍은 평균 수량이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인삼 대표 품종의 생육특성과 인삼의 주요 약효 성분인 ginsenoside 함량 조성과의 상관성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여 농가에서 재배한 4년근 천풍, 연풍의 동체 시료를 대상으로 total ginsenoside 함량을 조사한 결과, 천풍과 연풍이 각각 1.185, 1.420%로서 천풍보다 연풍이 그 함량이 약 0.2% 정도 더 높았다. Ginsenoside 조성에서 천풍이 연풍에 비해 protopanaxadiol계 ginsenoside(PD)의 함량이 protopanaxatriol계 ginsenoside(PT) 함량보다 더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는데, 천풍과 연풍의 PD/PT ratio는 각각 1.045, 0.978로 측정되었다. 부위별 구성비율 즉, 동체, 지근, 세근의 중량비율에서 천풍이 약 7 : 2 : 1, 연풍이 약 10 : 2 : 1로 나타나 세근의 비율은 천풍이 연풍보다 더 높았다. 즉 세근비율이 더 높은 천풍의 PD/PT ratio가 연풍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생체중에서는 천풍, 연풍의 한 개체당 평균 생체 무게가 각각 36.57, 59.91 g 으로서 연풍이 천풍보다 약 63%가 더 무거운 특징을 나타내었다.  
김금숙/043-871-5572/kimgs@rda.go.kr

## E-E1-24

### 한국 수집 쑥 종류의 잎형태적 분류

이정훈, 성정숙, 박춘근, 김영국, 박희운, 박호기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국화과에 속하는 쑥류(*Artemisia* sp.)는 한반도 내의 남부에서 북부지역까지 수평적으로 넓게 분포 하고 있으며, 발독, 하천, 해안에서부터 2000m이상의 높은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종이다. 또한 쑥류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활과 함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식용, 약용 등 다양한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쑥속의 식물은 동일종에서도 생육단계 및 생육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적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타가수분을 통해 자연집단내 잡종 변이체들도 많아 정확한 종 동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집된 개똥쑥을 비롯한 18종을 잎 형태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종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개똥쑥을 비롯한 16종은 정확한 동정을 통해 분류되어졌으나, 산쑥, 쑥은 잎의 다양한 형태적 변이에 의해 명확한 종 동정이 어려웠다.  
이정훈/031-290-6838/hooney77@daum.net